

전남대병원

‘좌심실 보조 순환장치’ 첫 시술 성공

삼성서울병원·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초 도입
급성심근경색 심장성 쇼크 합병증 생존률 향상 ‘입증’

전남대학교병원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펠라(Impella CP·좌심실 기능 보조 기계순환장치)’를 이용한 시술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임펠라는 유럽·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올해 하반기 신의료기술로 공식 도입됐다.

전남대병원은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임펠라’를 도입한 의료기관이다.

임펠라는 급성심근경색에 심장성 쇼크가 동반된 환자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기계순환 장치로 인정받고 있다.

심장성 쇼크가 합병된 급성 심근경색의 사망률은 40~50%에 달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약물 요법이나 에크모(ECMO)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임펠라는 대퇴동맥을 통해 얇은 관을 좌심실에 삽입, 심장 기능을 대

신 보조한다. 심실 등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심장성 쇼크의 위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 기회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번 시술에는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 김주환 교수, 홍영준 교수, 심두선 교수, 김민철 교수, 이승현 교수, 안준호 교수, 현대용 교수, 오석 교수, 임용환 교수로 구성된 중재 시술팀이 참여했다.

첫 시술 성공으로 지역 내 중증 심근경색 환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전남대병원은 밝혔다.

병원은 향후 임펠라를 적극 활용해 골든타임 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생존률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안영근 교수는 “유관 학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심장성 쇼크가 동반된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 세계 기준의 치료법을 적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 (사진 오른쪽부터) 안영근·김민철·임용환 교수가 급성심근경색·심장성 쇼크 발생 환자에게 ‘임펠라’를 이용한 시술을 하고 있다.

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임펠라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의회, 사랑의 열매에 성금 전달...의원·직원 십시일반

ESG 실천 일환으로 ‘급여 끝전 모으기’ 전개해 1143만원 마련
김태균 의장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온 힘 다하겠다” 밝혀



김태균(사진 가운데) 전남도의회의장이 1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에 참석, ‘급여 끝전 모으기’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1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전남도의회가 ESG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급여 끝전 모으기’ 등을 통해 마련한 성금 1,143만 원을 전남사회복지공

도모금회에 전달했다. ‘급여 끝전 모으기’는 의원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정기 나눔 활동으로, 전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상시 ESG 기부

프로그램이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취지로 이어온 이 활동은 자율적이고 꾸준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고 있으며, ESG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 이행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우리가 올리는 1도의 온도가 누군가에게는 겨울을 버티낼 난방비가 되고, 기니 걱정 없는 하루가 되며, 절망 끝에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된다”며, “전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성금 기탁을 계기로 도민과 함께하는 ESG 실천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의원과 직원들이 기부한 2,639여 점의 물품을 이마트대우점에 전달하는 ‘전남도의회 ESG 기부물품 전달식’을 열고, 해당 물품으로 바자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염선호 기자

나주이화신협, 150만원 상당의 난방용품 후원

‘온세상 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빗가람동·금천면에 전달



전라남도 나주시 빗가람동(동장 김귀남)은 나주이화신협(이사장 김광식)에서 지난달 28일 이불 18개, 온열매트 10개,

생활용품 어부바 박스 12개 등 총 150만원 상당의 빗가람동과 금천면에 나누어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신협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 사회공헌재단의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후원 물품은 관내 독거노인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이다.

김광식 이사장은 “해마다 기세를 더하는 매서운 추위의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매년 꾸준히 진행해 온 ‘온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귀남 빗가람동장은 “나주이화신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후원 물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농협전남본부, ‘신 청년농업인상’ 2명 배출

이동진·최경선 씨, 스마트팜·특수작물·축산 등 농업 발전 공헌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2025년 새로운 청년농업인상’ 시상식에서 이동진(장흥군 용산면) 씨와 최경선(광양시 광양읍) 씨가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일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2025년 새로운 청년농업인상’ 시상식에서 이동진(장흥군 용산면) 씨와 최경선(광양시 광양읍) 씨가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은 농협중앙회가 2017년부터 미

래 농업·농촌을 이끌 우수 청년농업인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매년 전국에서 20여 명을 선발한다. 현재까지 전국 161명, 전남에서는 14명의 청년농업인이 선정됐다. 이동진 씨(37·금곡영농조합법인)는

2012년부터 장흥군에서 수도작을 기반으로 축산(한우), 조사료, 두류(콩) 등으로 영농을 다각화했다.

2024년에는 콩 육묘 이식재배법을 도입해 생육 안정성과 품질을 높였으며, 귀농인과 청년창업농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병충해 공동방제단 참여 등 지역사회 기여도 활발하다.

최경선 씨(40·우신농원)는 2013년 귀농 후 보급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 1400평 규모 시설하우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수한 외국 고추 품종을 직접 발굴·재배해 국내 윌드푸드마트·아시아마트 등 약 1000곳과 거래를 확보하며 연매출 3억 원 규모의 틈새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이는 광양일예농협 청년농업인회 부회장으로 후배 농업인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전남 농업의 미래를 이끌 두 청년농업인의 수상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영농 기술과 열정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정용욱 전 국장

“공단 신뢰 회복·조직 역량 강화 최우선 과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일 서구시설관리공단 제3대 이사장에 정용욱 전 서구청 자치행정국장(사진)을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일부터 3년이다.

정용욱 신임 이사장은 1993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실장, 청소

행정과장, 문화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하며 인사·조직, 환경, 노동조합, 문화·체육 등 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치며 조직 운영 전반에 정통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정 이사장은 “공단의 신뢰 회복과 조직 역량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공공



효율화, 안전시스템 확충, 내부 상생협력 문화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함평서 2025 종강식 개최

경진대회 시상으로 한 해 활동 마무리...인재양성기금 기탁도



대한민국국화동호회가 함평군에 인재양성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대한민국국화동호회와 함께 예술과 나눔이 어우러진 국화 문화를 꽃피우며 지역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함평군은 1일 “대한민국국화동호회(회장 김행민)가 지난달 29일 함평군 농업기

술센터에서 2025년 국화동호회 종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강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동호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5년 운영 방향과 국화 문화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국화동호회는 종강식과 함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1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의 의미도 더했다.

이어 진행된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189점의 작품 가운데, 생육 상태, 균형미,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종합 심사를 거쳐 총 16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날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는 정교한 분재 기술과 풍부한 형태미를 갖춘 양금숙(57세) 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김행민 대한민국국화동호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은 장학금이 지역 인재들이 꿈을 키우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화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동호회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국화동호회의 꾸준한 활동과 열정은 대한민국국화대전의 수준을 높이고, 함평국화문화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화 문화 발전과 더불어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